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

김서연*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Effect of Self-Leadership in Dental Hygiene Students on Learning Agility

Seo-Yeon Kim*

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So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K지역에 있는 2개 대학교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95부 시행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 25.0을 이용하였다. 셀프리더십에 있어서는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성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학습민첩성에 있어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대인 관계, 성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을 개발하여 학교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간의 접근으로 반드시 융합연구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 치위생학과 학생,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 행동 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 전략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he subjects were 195 dental hygiene student who attended from september 6 to october 1, 2021. The statistics program was SPSS win 25.0. Self-leadership,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ersonality. In learning agilit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moking prevention and anti-smoking education, health conditi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al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and education that can increase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for college students in dental hygiene to increase school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Key Words : Dental hygiene student, Self-leadership, Learning agility, Behavior-focused strategies, Natural reward strategies

1. 서론

셀프리더십이란 개인이 스스로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이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 행동, 사고를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1].

학습민첩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였을 때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것을 활용하여 결과를 내는 의지와능력을 말하며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학습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결과에 긍정적인 효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4].

대인민첩성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타인을 긍정적으로 다가가고, 변화의 압박에 유연한 특성이다. 결과민첩성은 타인이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고취시키고 자신감을 부여해주며, 어려운 역경에서도 결과를 내는 특성이다. 사고 민첩성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하고, 호호성과 복잡성,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게 어려워하지 않는 특성이다, 변화 민첩성은 아이디어와 호기심에 대한 열정이 있고, 새로운

*Corresponding Author : Seo-Yeon Kim(kseoy@hanmail.net)

Received October 23, 2022

Accepted December 20, 2023

Revised November 15, 2022

Published December 28, 2023

형식이나 방법을 시도하며, 자신의 스킬을 연마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

4차 산업사회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다음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강조되었다[5].

Yang과 Song.[6]연구에 의하면 셀프리더십이 대학생의 진로를 준비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Won과 Cho[7]의 연구에 의하면 내적인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이나 일에서 보람과 가치관을 찾아 높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목표 달성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Jang 등[8]연구에 의하면 치과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의 조직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의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직무만족과 조직몰입하는데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변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K지역에 있는 2개 대학교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편의 추출 하였고,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으로 관련된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서면에 동의한 학생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5부를 최종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수준(α)=0.05, 효과크기(f^2)=0.15, 검정력($1-\beta$)=0.95, 예측인자 3개로 했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총 119명이었다. 이는 변수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충분한 표본의 수라고 할 수 있다.

2.2 연구도구

설문지의 구성은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와 학습민첩성에 대해 사용하였다.

2.2.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hton and Neck [9]이 개발한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를 우리나라 대학생으로 타당화한 Shin, Kim과 Han [10]이 번역한 뒤에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로 Yim[11]의 연구에서 이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의 도구는 행동중심적 전략 18문항, 자연적보상 전략 5문항, 건설적사고 전략 12문항으로 된 3개 하위영역에 총 35문항 구성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화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할 때에는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93이었고 Yim[11]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1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행동중심적 전략'이 0.83, '자연적보상 전략'이 0.79, '건설적사고 전략'이 0.88로 나타났다.

2.2.2 학습민첩성

학습민첩성은 Gravett와 Caldwell(2016)[12]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Kim[13]가 수정한 도구를 참고하여 Yim [11]가 수정·정리한 25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습민첩성의 도구는 사고민첩성 6문항, 대인민첩성 6문항, 변화민첩성 6문항, 결과민첩성 7문항으로 된 4개 하위영역에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화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민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Yim[11]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습민첩성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0.87이었고, 하위영역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사고민첩성'이 0.60, '대인민첩성'이 0.67, '변화민첩성'이 0.65, '결과민첩성'이 0.66으로 나타났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ver 25.0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의 평

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을 시행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대상자는 총 195명으로 학년은 1학년 12.3%, 2학년 15.4%, 3학년 41.0%, 4학년 31.3%로 나타났다. 흡연여부는 흡연 9.7%, 비흡연 90.3%로 나타났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유 26.7%, 무 73.3%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나쁨 4.1%, 보통 28.7%, 양호 39.5%, 매우 양호 27.7%로 나타났다. 대학생할 만족도는 불만족 3.6%, 보통 36.4%, 만족 47.7%, 매우 만족 12.3%로 나타났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Grade	1st	24(12.3)
	2nd	30(15.4)
	3rd	80(41.0)
	4th	61(31.3)
Smoke	Smoking	19(9.7)
	Non smoking	176(90.3)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education	Yes	52(26.7)
	No	143(73.3)
Health status	Bad	8(4.1)
	Usually	56(28.7)
	Good	77(39.5)
	Very good	54(27.7)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7(3.6)
	Usually	71(36.4)
	Ssatisfied	93(47.7)
	Very satisfied	24(12.3)
Majors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1.0)
	Usually	70(35.9)
	Ssatisfied	91(46.7)
	Very satisfied	32(16.4)
Human relationship	Not good	2(1.0)
	Usually	40(20.5)
	Good	106(54.4)
	Very good	47(24.1)
Personality	Extrovert personality	73(37.4)
	Introverted personality	122(62.6)

*p<.05, **p<.01, ***p<.001

전공 만족도는 불만족 1.0%, 보통 35.9%, 만족 46.7%, 매우 만족 16.4%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좋지 않다 1.0%, 보통 20.5%, 좋다 54.4%, 매우 좋다 24.1%로 나타났고, 성격은 내향적인 편 62.6%, 외향적인 편 37.4%로 나타났다.

3.2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 정도

Table 2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 정도이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역별 '행동중심적 전략'이 3.51점, '자연적보상 전략'이 3.42점, '건설적사고 전략'이 3.37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은 5점 만점에 평균은 3.41점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역별 '사고민첩성'이 평균 3.47점, '대인민첩성'이 평균 3.40점, '결과민첩성'이 평균 3.39점, '변화민첩성'이 평균 3.38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of study subjects

Variables	Meant±SD
Self-leadership	3.45±0.45
Behavior-focused strategies	3.51±0.46
Natural reward strategies	3.42±0.64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3.37±0.61
Learning Agility	3.41±0.42
Mental agility	3.47±0.51
People agility	3.40±0.53
Change agility	3.38±0.51
Result agility	3.39±0.48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 차이

Table 3과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셀프리더십에 있어서는 대학생할 만족도($F=7.288, p<.001$), 전공(학과) 만족도($F=6.375, p<.001$), 대인관계($F=3.002, p<.05$), 성격($t=2.021,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할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의 경우 불만족, 보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공(학과)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의 경우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에 따라서는 매우 좋다는 경우 보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격에 따라서는 외향적인 편인 경우 내향적인 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에 있어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t=2.033, p<.05$), 건강상태($F=2.686, p<.05$), 대학생할 만족도($F=$

10.694, $p < .001$), 전공(학과) 만족도($F=8.920$, $p < .001$), 대인관계($F=6.083$, $p < .01$), 성격($t=3.680$, $p < .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흡연예방과 금연 교육은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양호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의 경우 불만족, 보통, 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공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의 경우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 따라서는 매우 좋다는 경우 좋지 않다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격에 따라서는 외향적인 편인 경우 내향적인 편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4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의 상관관계

Table 4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은 학습민첩성의 사고민첩성, 대인민첩성, 변화민첩성, 결과민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5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요인

Table 5와 같이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F=16.503$,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beta=.267$, $p < .01$)이 사고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사고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인민첩성에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4.797$,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beta=.335$, $p < .001$), 건설적사고 전략($\beta=.308$, $p < .001$)이 대인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변화민첩성에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3%이였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4.674$,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beta=.429$, $p < .001$), 건설적사고 전략($\beta=.212$,

$p < .01$)이 변화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변화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과 건설적사고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Table 3.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Self-leadership		Learning Agility	
		Mean ±SD	t/F(p)	Mean ±SD	t/F(p)
Grade	1st	3.39 ±0.54	.440	3.46 ±0.46	.233
	2nd	3.44 ±0.48	(.725)	3.37 ±0.30	(.873)
	3rd	3.43 ±0.46		3.40 ±0.48	
	4th	3.50 ±0.38		3.42 ±0.38	
Smoke	Smoking	3.41 ±0.48	-.343	3.54 ±0.40	1.362
	Non smoking	3.45 ±0.45	(.732)	3.40 ±0.42	(.175)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education	Yes	3.51 ±0.56	.995	3.52 ±0.48	2.033*
	No	3.42 ±0.40	(.248)	3.37 ±0.39	(.045)
Health status	Bad	3.46 ±0.38	1.119	3.45 ±0.49 ^{ab}	2.686*
	Usually	3.40 ±0.34	(.343)	3.36 ±0.40 ^{ab}	(.048)
	Good	3.41 ±0.48		3.35 ±0.35 ^a	
	Very good	3.54 ±0.51		3.55 ±0.51 ^b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3.16 ±0.30 ^a	7.288***	3.10 ±0.41 ^a	10.694***
	Usually	3.34 ±0.39 ^a	((.001)	3.31 ±0.39 ^a	((.001)
	Ssatisfied	3.46 ±0.41 ^{ab}		3.41 ±0.38 ^a	
	Very satisfied(3.78 ±0.63 ^b		3.80 ±0.47 ^b	
Majors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3.26 ±0.36 ^a	6.375***	3.16 ±0.00 ^a	8.920***
	Usually	3.30 ±0.39 ^{ab}	((.001)	3.28 ±0.42 ^{ab}	((.001)
	Ssatisfied	3.48 ±0.43 ^{ab}		3.41 ±0.35 ^{ab}	
	Very satisfied(3.68 ±0.52 ^b		3.71 ±0.49 ^b	
Human relationship	Not good	3.39 ±0.06 ^{ab}	3.002*	3.08 ±0.17 ^a	6.083**
	Usually	3.34 ±0.41 ^a	(.032)	3.24 ±0.35 ^{ab}	(.001)
	Good	3.42 ±0.42 ^{ab}		3.40 ±0.37 ^{ab}	
	Very good	3.61 ±0.53 ^b		3.60 ±0.52 ^b	
Personality	Extrovert personality	3.53 ±0.47	2.021*	3.55 ±0.43	3.680***
	Introverted personality	3.40 ±0.44	(.045)	3.33 ±0.39	((.00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Variables	Self-leadership			Learning Agility			
	Behavior-focused strategies	Natural reward strategies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Mental agility	People agility	Change agility	Result agility
Behavior-focused strategies	1						
Natural reward strategies	.469***	1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513***	.627***	1				
Mental agility	.313***	.417***	.382***	1			
People agility	.342***	.540***	.531***	.519***	1		
Change agility	.324***	.569***	.489***	.654***	.647***	1	
Result agility	.411***	.546***	.509***	.495***	.631***	.632***	1

***p<.001

Table 5.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learning agilit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Mental agility	(Constant)	1.888	.261		7.226	.000
	Behavior-focused strategies	.115	.084	.105	1.361	.175
	Natural reward strategies	.213	.067	.267	3.150**	.002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135	.073	.161	1.846	.066
R ² = .206, Adj. R ² = .193, F-value = 16.503***, p = .000						
People agility	(Constant)	1.441	.245		5.869	.000
	Behavior-focused strategies	.031	.079	.027	.392	.696
	Natural reward strategies	.277	.063	.335	4.371***	.000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269	.069	.308	3.906***	.000
R ² = .353, Adj. R ² = .343, F-value = 34.797***, p = .000						
Change agility	(Constant)	1.564	.235		6.642	.000
	Behavior-focused strategies	.016	.076	.015	.209	.835
	Natural reward strategies	.341	.061	.429	5.606***	.000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178	.066	.212	2.691**	.008
R ² = .353, Adj. R ² = .342, F-value = 34.674***, p = .000						
Result agility	(Constant)	1.416	.222		6.366	.000
	Behavior-focused strategies	.140	.072	.135	1.944	.053
	Natural reward strategies	.257	.057	.341	4.470***	.000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180	.062	.226	2.880**	.004
R ² = .357, Adj. R ² = .347, F-value = 35.324***, p = .000						

p<.01, *p<.001

결과민첩성에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7%이었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5.324, p<.001). 독립변수별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β =.341, p<.001), 건설적사고 전략(β =.226, p<.01)이 결과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결과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과 건설적사고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이 학습민첩성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변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민첩성은 5점 만점에 평균은 3.41점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을 위해 치위생학과 대학생 대상으로 한 Min등[14]의 연구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29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지만 Chun등[15]의 연구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3.44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되었다. 학습민첩성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을 위해 대학생 대상으로 한 Sung과 Jin[16] 연구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2.92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간호대학생으로 한 Yim과 Lee[17]의 연구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53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되었다.

셀프리더십에 있어서는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 대인관계와 성격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의 경우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에 따라서는 매우 좋다는 경우 높게 나타났고, 성격은 외향적인 편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에 의하면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 학점이 높은 경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학습민첩성에 있어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성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의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고,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매우 좋다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고, 성격은 외향적인 편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18]에 의하면 학습민첩성은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와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외향적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은 학습민첩성의 사고민첩성, 대인민첩성, 변화민첩성, 결과민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한 Yim과 Lee[17]연구와 Kim과 Lee[19]에 의하면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학습민첩성이 높았으며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이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이 사고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사고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이 대인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대인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과 건설적사고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이 변화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변화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과 건설적사고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이 결과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결과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치위생학과 대학생으로 국내 환경과 비슷한 선행연구가 없다보니 직접적인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치위생학과 대학생들의 학습민첩성이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별과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고민첩성, 대인민첩성, 변화민첩성, 결과민첩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현장에서는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일부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 제한이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개인적인 정서 및 직무수행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시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K지역에 있는 2개 대학교의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 4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특성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과목이 점차 많아지므로 4학년이 셀프리더십이 가장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3,4학년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이 병행되면서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받았을꺼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차후 교육과정에서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의 역량이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셀프리더십에 있어서는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성격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에 있어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성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치위생학과 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을 개발하여 학교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간의 접근으로 반드시 융합연구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Manz, C. C., & Sims, H. P. (2001). *The new super-leadership :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Berrett-Koehler Publishers.
- [2] Lombardo MM & Eichinger RW.(2000). High potentials as high lead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39(4), 321-330.
DOI : 10.1002/1099-050X (200024)39:43.0.CO:2-1
- [3] Drinka, GAO. Coaching for learning agility: The importance of leader behavior, learning goal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saf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18. DOI : 10.7916/D85X3S2F
- [4] DeRue DS, Ashford SJ, Myers CG. Learning agility: In search of conceptual clarity and theoretical grounding.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12;5(3):258-279.
DOI : 10.1111/j.1754-9434.2012.01444.x
- [5] Sung E, Jin SH. Analysis on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at the level of learning agility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019;35(4):1005-1033.
DOI : 10.17232/KSET.35.4.1005
- [6] Su-jin Yang & Young-soo Song.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2), 443-470.
- [7] Hyo-Jin Won & Sung-Hyin Cho. (2013). A review of research on self-leadership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3):382-393.
DOI : 10.11111/jkana.2013.19.3.382
- [8] Jong-Hwa Jang, Young-Soo Lee, Ae-Eun Moon. (2011).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lf-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oral health professiona. *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1(3), 395-404.
- [9] Houghton, J. D., & Neck, C. P.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 [10] Yong-Kook Shin, Myoung-So Kim & Young-Seol Han.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 6(3), 313-340. DOI : 10.16983/kjsp.2009.6.3.377
- [11] Kyun-Hee Yim. (2020).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Nursing Students on Learning Ag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 [12] Gravett, L. S., & Caldwell, S. A. (2016). *Learning agility: The impact on recruitment and retention*. Springer.
- [13] Nam Hui Kim. (2019). Examining influencing and performance factors related to learning agility as the growth potential of employe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4] Kyong-Hye Min, Yu-Jeong Do & Hee-Hong Min. (2020).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4):525-533.
DOI : /10.13065/jksdh.20200048
- [15] Ju-Yeon Chun, Myong-Suk Shin, Soo-Kyung Kim. (2012). Effect of self-leadership on stress coping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2(2), 285-229.
- [16] Eun-mo Sung, Sung-Hee Jin. (2019). Analysis on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at the Level of Learning Agility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5(4), 1005-1033.
- [17] Kyun-Hee Yim & Insook Lee. (2021).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learning ag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7(1):80-90.
DOI : 10.5977/ jkasne.2021.27.1.8
- [18] Jung Choi, Young-Mi Park, Young-Ok Ha, Yoo-Rim Kweon, Jung-Hee Song, Min-Kyeong Kim & Da-youn Kim. (2021).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drop out.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9(1): 117-127.
DOI : 10.22678/JIC.2021.19.1.117
- [19] Young-Sun Kim & Hyun-Ju Lee.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media literacy and learning agility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online clas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1; 27(4):359-368.
DOI : 10.5977/jkasne.2021.27.4.359

김 서 연(Seo-Yean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2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의학과 (치의학박사)
- 2009년 3월~현재 :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병리학, 예방치학, 융합
- E-Mail : kseoy@hanmail.net